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연구와 활용 - 공유와 공용을 넘어 공영으로*

한성우(인하대)

1, 서론

이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현대 한자음의 대응 양상을 비교 대조해 한자음 연구와 한중일 각국의 외국어 교육 및 학습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자음은 중국어 내에서도 한자음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한국과 일본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음운체계에 맞게 수용된 이후 개별 언어의 변화에 따라 독자적인 변화를 겪어 삼국의 한자음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현대 한자음을 초성, 중성, 종성 및 음절로 나누어 각각의 대응 관계를 모두 분석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漢字	中音	中IPA	韓音	韓IPA	日音	日IPA
阿	e	∅ə∅	아	∅a∅	ア	∅a∅
阿	a	∅a∅	옥	∅ok	ア	∅a∅
哎	ai	∅ay∅	애	∅ε∅	アイ	∅ay∅
扒	ba	pa∅	배	pε∅	ハツ	ha\$tsu
般	pan	p ^h an	반	pan	ハン	haN
爆	bao	paw∅	폭	p ^h ok	ハク	ha\$ku

<표 1 분석용 기초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한국한자 능력검정회에서 제정한 1급 한자 3,500자, 중국의 『通用規範漢字表』 1급 상용한자 3,500자, 일본

의 常用日文漢字 2,136자를 종합한 4,361자를 비교분석한다. 이 한자를 다시 多音字와 多義字까지 처리해 총 8,420행의 기초자료를 <표 1>과 같이 정리해 분석하였다.

2. 한자음과 음절의 분포 양상

* 이 연구는 郭蕊(山東青年政治學院), 羅雲燕(北京外國語大學)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세 책을 참조할 수 있다.
 광예(2020), 한중 현대 한자음의 대응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나운연(2023),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대응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광예, 나운연, 한성우(2023),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연구와 활용, 한국문화사.

삼국은 음운체계가 서로 다르고 음절 구조에 대한 인식과 음절 각 부분의 음소 분포도 서로 다르다. 삼국의 음소 분포와 빈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初聲	中(19)	∅(986), ʈ(852), s(705), ʈʰ(514), tʂ(490), h(439), ʂ(434), l(433), m(429), p(411), t(397), tʂʰ(375), pʰ(326), tʰ(320), k(306), f(298), n(213), kʰ(183), r(131)
	韓(17)	ㄱ(1,216), ∅(1,063), ㅈ(966), ㅊ(954), ㅎ(798), ㅅ(731), ㅆ(619), ㅍ(528), ㅋ(444), ㅌ(328), ㄷ(328), ㅌ(206), ㄴ(180), ㅋ(3), ㅆ(3), ㅈ(3)
	日(14)	s(1652), k(1591), h(770), ∅(747), z(595), g(582), b(512), t(501), r(431), m(285), ʈ(255), d(235), n(163), p(4)
中聲	中(22)	i(1,264), u(1,160), a(939), ə(701), yə(595), wə(389), wa(354), i(332), ü(328), aw(313), wəy(273), ya(270), əw(250), ay(239), yaw(220), ɥə(188), yəw(172), əy(132), yu(66), way(55)
	韓(22)	ㅏ(1,721), ㅑ(1,190), ㅓ(967), ㅕ(820), ㅣ(820), ㅗ(681), ㅛ(485), ㅡ(276), ㅜ(244), ㅠ(243), ㅝ(199), ㅞ(139), ㅟ(111), ㅠ(105), ㅡ(101), ㅢ(78), ㅣ(74), ㅤ(48), ㅥ(40), ㅦ(28)
	日(22)	a(1,085), e(1,085), i(1,017), o(935), ɔ(849), yo(829), u(605), ay(416), ey(339), yu(273), ya(261), yu(232), yo(106), u(76), wa(24), way(9), uy(9), yuy(6), i(1), yaw(1)
終聲	中(3)	∅(5,158), n(1,604), ㄱ(1,456)
	韓(10)	∅(3,623), ㅇ(1,479), ㄴ(1,206), ㄱ(869), ㄷ(582), ㅍ(387), ㅅ(224)
	日(10)	∅(5,252), N(1,618), ku(723), tsu(350), ʈi(238), ki(130), Q(10), mo(1), mu(1)

<표 2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음소 분포와 빈도>

음절의 각 위치에 쓰일 수 있는 음소의 종류와 분포가 다르므로 각 음소가 결합된 음절의 유형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삼국의 음절 구조 유형과 빈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中(401) 拼音	ji(139), fu(117), shi(110), yi(108), zhi(104), qi(94), yu(91), xi(90), li(79), shu(75), jie(72), jian(71), mo(71), jing(68), ju(65), yan(63), wu(62), xie(60) sen(1), seng(1), yo(1), zuo(1)
韓(400)	수(112), 기(106), 구(102), 사(100), 정(97), 조(89), 부(83), 주(82), 경(80), 도(78), 전(75), 호(75), 유(67), 비(65), 고(64), 상(63), 포(63), 모(60), 장(58) 펌(1), 핑(1), 훅(1), 흑(1)
日(402)	コウ(238), ショウ(196), キョウ(132), ソウ(129), シ(128), トウ(125), カン(112), キ(106), ク(103), セン(103), ジョウ(102), ホウ(97) 레(1), 왓치(1), 왓츠(1), 웅(1)

<표 3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음절 구조 유형과 빈도>

p	p-ㅏ-h(42.8%) p-ㅑ-h(29.1%) p-ㅓ-b(15.0%)
pʰ	pʰ-ㅏ-h(39.5%) pʰ-ㅑ-h(26.8%) pʰ-ㅓ-b(18.5%)
t	t-ㄷ-t(30.0%) t-ㅈ-t(13.6%) t-ㄷ-d(9.8%)
tʰ	tʰ-ㅌ-t(22.2%) tʰ-ㄷ-t(18.8%) tʰ-ㄷ-d(13.4%)
k	k-ㄱ-k(85.6%) k-ㅎ-k(5.6%) k-ㄱ-g(3.3%)
kʰ	kʰ-ㄱ-k(73.8%) kʰ-ㅎ-k(11.5%) kʰ-ㄱ-g(6.6%)
ʈ	ʈ-ㄱ-k(47.5%) ʈ-ㅈ-s(25.1%) ʈ-ㄱ-g(8.1%)
ʈʰ	ʈʰ-ㄱ-k(29.4%) ʈʰ-ㅆ-s(29.4%) ʈʰ-ㅈ-s(13.2%)
tʂ	tʂ-ㅈ-s(36.8%) tʂ-ㅈ-t(13.3%) tʂ-ㅆ-s(10.5%)
tʂʰ	tʂʰ-ㅆ-s(27.5%) tʂʰ-ㅈ-s(14.4%) tʂʰ-ㅈ-z(10.1%)
f	f-ㅏ-h(62.8%) f-ㅑ-b(26.2%) f-ㅓ-h(8.1%)
s	s-ㅈ-s(45.7%) s-ㅎ-k(26.2%) s-ㅈ-z(8.5%)
ʂ	ʂ-ㅈ-s(65.7%) ʂ-ㅈ-z(22.4%)
h	h-ㅎ-k(52.8%) h-ㅎ-g(26.2%) h-ㅎ-∅(9.6%)
m	m-ㅍ-m(53.4%) m-ㅍ-b(39.9%)
n	n-ㄴ-n(42.7%) n-ㄴ-d(24.9%) n-∅-g(5.2%)
l	l-ㄹ-r(95.6%)
r	r-∅-z(40.5%) r-∅-n(38.9%) r-∅-∅(14.5%)

<표 4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초성 대응 양상>

3. 한자음의 대응 양상의 연구

삼국의 한자음 대응 양상을 비교, 대조하는 것은 한자음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삼국 한자음 초성의 대응 양상을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파열음 계열은 전체적으로 파열음에 대응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삼국에서 '파열음-파열음-파열음'의 일치한 대응은 비율상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파찰음 계열은 유일하게 50% 이상을 넘는 체계적인 대응이 없다. 이는 권설음을 포함한 파찰음 계열의 통시적인 변화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응 양상은 대부분 삼국 음운의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이나 전반적으로는 음운체계에 부합하는 대응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i	i-ㅣ -i(24.7%) i-ㅓ -ey(8.4%) i-ㅓ -yo:(7.4%);
a	a-ㅓ -a(41.0%) a-ㅓ -o:(18.2%) a-ㅓ -e(6.5%)
ü	ü-ㅓ-u(9.5%) ;ü-ㅓ -yo(12.8%) ü-ㅓ -o(10.7%)
i	i-ㅣ -i(46.4%) i-ㅓ -i(22.3%)
ə	ə-ㅣ -i(14.1%) ə-ㅓ -a(9.0%) ə-ㅓ -o:(4.7%)
u	u-ㅓ-o(25.3%) u-ㅓ-u(15.8%) u-ㅓ-u(11.3%)
ya	ya-ㅓ -o:(21.1%) ya-ㅓ -yo:(18.5%)
yə	yə-ㅓ -e(30.4%) yə-ㅓ -e(25.2%) yə-ㅓ -e(7.4%)
yu	yu-ㅓ-yo:(13.6%) yu-ㅓ -yo:(10.6%)
wa	wa-ㅓ-a(16.7%) wa-ㅓ-o:(12.4%)
wə	wə-ㅓ -a(42.9%) wə-ㅓ-a(11.1%)
ɥə	ɥə-ㅓ -e(20.7%) ɥə-ㅓ -e(20.2%)
ay	ay-ㅣ -ay(61.1%) ay-ㅣ -e(10.0%)
əy	əy-ㅣ -ay(34.1%) əy-ㅣ -i(22.7%)
aw	aw-ㅓ-o:(54.3%) aw-ㅓ-yo:(17.3%)
əw	əw-ㅓ-u(25.6%) əw-ㅓ-o:(25.6%)
yaw	yaw-ㅓ-yo:(48.2%) yaw-ㅓ-yo:(25.9%)
yəw	yəw-ㅓ-yu:(27.3%) yəw-ㅓ-yu:(20.9%)ㅓ
way	way-ㅓ -e(23.6%) way-ㅓ -ay(21.8%)
wəy	wəy-ㅓ-uy(14.3%) wəy-ㅓ -ay(12.5%)

<표 5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중성 대응 양상>

중성의 대응 양상을 종합하면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음의 대응은 자음보다 유동적이다. 대부분 모음의 대응 양상은 다양한 유형에 분산되어 특정 유형에 집중된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복모음까지 포함하여 비교하면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복잡한 대응 양상은 삼국 모음의 통시적인 변화와 내부의 음운 현상에 의

하여 형성되었다. 중국어의 이중모음과 한국어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나타난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뿌리의 삼국 한자음은 그동안 독자적인 음운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계적인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유형	빈도	비율
ㄱ-∅-ku/ki	751	86.40%
ㄴ-n-N	1147	95.10%
ㄷ-∅-tsu/tsi	524	90%
ㅍ-p-N	387	95.90%
ㅏ-∅-∅	176	78.60%
ㅓ-ŋ-∅	1396	94.40%

<표 6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중성 대응 양상>

중성의 대응 양상을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현대 중국어와 일본어는 중성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 한국어는 비교적 여러 자음이 올 수 있으므로 중

성의 대응 양상은 한국어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한국 한자음을 기준으로 볼 때, 삼국 현대 한자음에서 종성의 대응은 다양해 보이지만 거의 한 유형에 집중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비해 /ㄱ, ㄴ, ㅁ/의 대응은 흥미롭다. /ㄱ/과 /ㄴ/은 중국 한자음에는 'ㅇ'에 대응되고, 일본 한자음에는 두 번째 음절이 /k/로 시작하는 'ku/ki'와 /ts/로 시작하는 'tsu/tsi'에 각각 대응된다. 'ㄴ-tsu/tsi'의 대응 양상은 매우 특이하다. 이는 입성 운미 /t/가 중국에서 /r/로 변환된 단계가 있었는데 한국 한자음은 마침 그 단계의 발음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한자음의 종성 /ㅁ/는 중국과 일본에서 종성이 비어 있는 'ㅇ'에 대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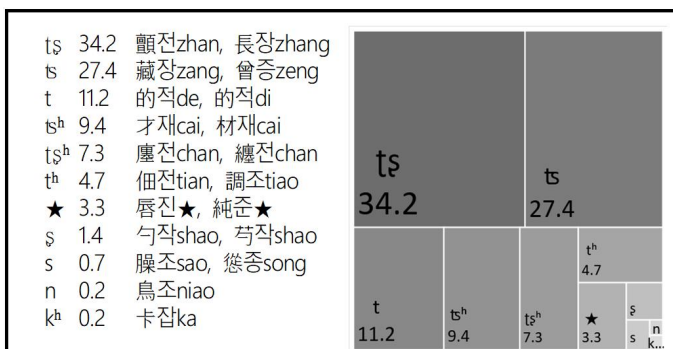
음절 유형	한국	중국	일본
(G)V(G)	16	18	17
C(G)V(G)	103	208	135
(G)V(G)C	49	15	28
C(G)V(G)C	303	157	221
합계	471	398	401

<표 7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음절 대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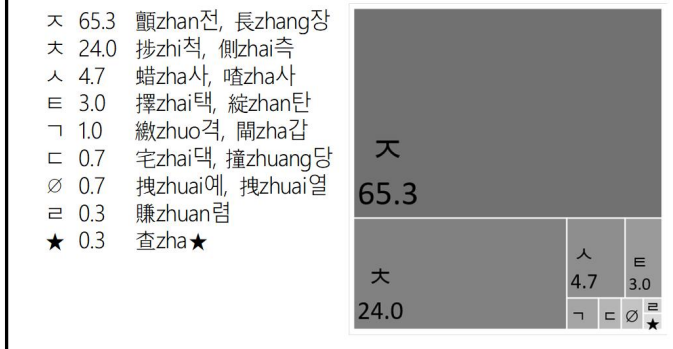
음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대응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음절 유형에 따라 대응 양상을 보이면 <표 7>과 같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자음은 하나의 음절로 사

용되기 때문에 음절 층위에서의 대응 양상은 삼국 현대 한자음이 실제로 어떠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지 보여준다. 음절의 구성 요소인 초성, 중

성, 종성으로 보면 음절 층위의 대응은 자음 또는 모음의 대응 양상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결합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음절의 대응 유형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



<표 8 초성 'ㄷ'의 한중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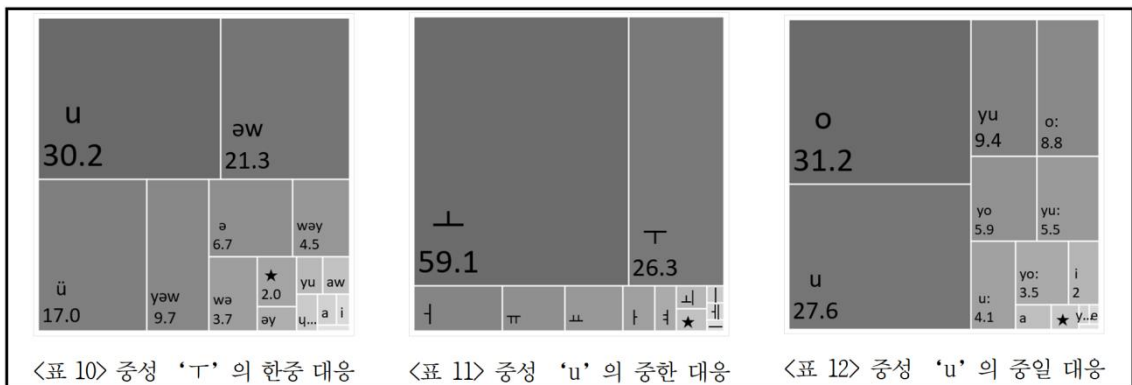
<표 9 초성 'ㄷ'의 중한 대응>

4. 한자음 대응 양상의 활용

현대 한자음의 대응을 통한 연구를 위해서는 한중일

삼국의 한자음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좋지만 학습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별로 일대일 대응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 대응 관계는 초성, 중성, 종성 각각을 살펴볼 수도 있고 이들의 결합인 음절을 살펴볼 수도 있다. 한중 한자음의 대응 양상은 <표 8, 9>와 같다. 이를 통해 음소의 대응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한자음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빈도, 비율, 도식 등을 통해 대응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 학습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한중일의 학습자 모두가 한자를 공유, 공용하고 있고 각 언어의 한자음에 대한 직관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와의 대응 양상을 파악하면 학습과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학습과 교육에 도움이 될 대응 양상 몇 가지를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는 /o/와 /u/를 구별하지 않아 한국어나 일본어 학습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각 언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정확한 발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자음은 실제 언어에서는 음절 단위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음절의 대응 관계에 대한 이해가 활용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 음절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음소 단위에서의 대응이 종합된 것이므로 음소 단위의 대응 관계를 활용하면 음절의 대응 관계를 학습자 스스로가 파악할 수도 있다. 음절 대응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jia	12	伽,佳,假,價,加,嫁,家,架,稼,賈,迦,駕	jia	가	12	伽,加,佳,迦,家,假,賈,架,稼,稼,價,駕	jia	カ	13	加,佳,迦,家,假,假,賈,价,架,嫁,稼,價,駕
ke	6		可,呵,柯,苛,軻,珂	갑	3		甲,岬,鉞	ケ	10		加,佳,迦,家,假,賈,架,嫁,稼,駕
jie	2		價,街	협	2		夾,頰	キョウ	4		夾,頰,甲,岬
qie	2		伽,茄	개	1		价	コウ	4		夾,甲,岬,鉞
ge	2		哥,歌	하	1		假	カイ	1		佳
xia	1		暇	〈표 14〉 음절 ‘jia’의 중한 대응			カン	1			甲
★	1		茄	〈표 15〉 음절 ‘jia’의 중일 대응			ガ	1			駕
ga	1		咖	〈표 13〉 음절 ‘가’의 한중 대응			★	1			伽
ka	1		咖	〈표 13〉 음절 ‘가’의 한중 대응							
que	1		癩	〈표 13〉 음절 ‘가’의 한중 대응							
he	1		呵	〈표 13〉 음절 ‘가’의 한중 대응							

5. 한자의 공유와 공용, 그리고 동아시아의 공영

중국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 및 인근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된 한자는 한중일 삼국에서 ‘공유(共有)’와 ‘공용(共用)’되어 왔다. 한국과 일본에 고유한 문자가 없던 시기에는 한문이 문어(文語)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고 한국과 일본에서 자국문자를 사용한 이후에도 문어, 어휘, 표기체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자의 공유와 공용 경험은 현재에도 각국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자로 표기된 경우에는 독법과 현대 한자음의 차이로 정확한 발음을 알기는 어렵지만 의미는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자를 음으로만 읽고 음절 단위의 표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로 쓰지 않아도 한자와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한자어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삼국의 한자음 대응 양상에 대한 이해는 언어 연구는 물론 학습과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자의 공유와 공용 경험은 근대 이후 한중일 삼국의 어휘 생산과 사용 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근대 이후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수없이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에서 한자는 매우 유용했다. 본래 한자는 한글자가 한 단어이지만 수없이 많은 사물과 개념을 새로운 한자로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 기존 한자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결합해 새로운 단어를 양산할 수 있었다. 본래 ‘번개’를 뜻했던 ‘電’이 ‘electro-’와 같이 쓰여

‘전기, 전자, 전선.....’과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 또한 ‘배우다’를 뜻하는 ‘學’이 ‘과학, 철학, 문학.....’과 같은 여러 학문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단어를 만드는 데 쓰였다. 이 과정과 결과를 공유한 덕분에 한중일 삼국은 근대 이후의 문물을 나타내는 어휘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자는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까지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이 축적되면 의미가 시각을 통해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전달되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유용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 문자가 있지만 한자를 병기하여 얻는 이점이 크므로 한자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다. 한국은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한글의 특성으로 한자어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이고 한자어 조어법의 장점으로 인해 앞으로도 한자에 대한 지식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자의 공유와 공용 경험은 한중일 삼국의 ‘공영(共榮)’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와 공용된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한 공동 작업이 시급하다.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이해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공유되고 활용되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상호이해를 통한 공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의 현대 한자음에 대한 이해와 활용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